

#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7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93:1-5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40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47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귄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 환경과 조건에 따라 행복행이 결정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음을 인생들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오니 텍사스의 충격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시편 119:161-168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봉 헌(offering) ..... 4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 235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에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예배 중 마스크 착용
  - 소그룹(성경공부 및 속회) 모임 연기
  - 친교 : 임원회에서 논의 중
3. 교회주소록을 수정하여 다시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 전쟁으로 인해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도록
- 텍사스 충격사건으로 희생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의 가족을 위해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

## <말씀묵상> 시편 119:161-168

161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3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4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6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167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1.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161-164, 166-168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2.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165절)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 일찌감치 선을 굽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죄라고 금하신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은 믿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낳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에 기록된 뛰어난 윤리규정이나 도덕법 정도로만 알고 있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신앙의 근본부터 뒤틀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성화를 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있습니까?